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커피 1호점 운영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은 25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프로그램, '꿈드림커피 1호점'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와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영미 커뮤니케이션 아카데미(원장 문영미)와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꿈드림커피 1호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과정을 토대로 커피 이론과 애스프레소 추출 등의 실습교육을 받게 된다.

체험이 모두 끝난 이후에는 수료식 및 시음회도 열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만든 커피를 서로 공유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가지게 된다.

전주시 꿈드림은 프로그램 이후 희망 청소년에 한해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정혜선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자기계발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립심 강화 및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청소년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jangdam.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27-1005)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여성리더들, 세상을 바꾸는 습관 실천 교육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영이)는 25일 완주군 싱그랭이 생태정원에서 여성단체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상을 바꾸는 습관(여성리더 eco실천)' 실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고은경 환경교육연구소 대표와 문성숙 동화나라연구소 대표기강사로 초청돼 각각 '기후위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와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주제로 강연했다.

친환경 분야 만들기 체험행사도 진행됐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환경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소비를 실천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어떠한 행동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했다.

1998년 설립된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전주시 새마을부녀회와 자연서핑회, 주부환경김시단 등 10개 단체 3528여명의 회원들이 여성의 사회참여촉진과 성평등 활동, 지역사회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전주시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남원 금지면 어울봉사단, 밀반찬 나눔 봉사

남원시 금지면(면장 안민업)은 "우리 면민은 우리가 책임진다"를 모토로, 면 어울봉사단원들은 25일 면 누리센터에서 밀반찬 지원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금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영곤, 안민업)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금지면 어울봉사단(이하 봉사단)은 2018년 3월부터 밀반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2회 관내 저소득 가정 중 식사가 어려운 독거노인·장애인 등 18가정에 직접 밀반찬을 배달 지원하고 있다.

안민업 면장은 "앞으로도 복지지역대 및 위기기구 발굴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으뜸자원봉사자 7명 선정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전주시장 표창 수여

시립과 나눔의 자원봉사를 실천한 전주시민 7명이 '전사도시' 전주를 빛낸 으뜸자원봉사자로 선정됐다.

시민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25일 전주시시장실에서 2022년 2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을 열고 일반인 5명과 청소년 2명 총 7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전주시장 표장을 수여했다.

으뜸자원봉사자는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전주시 23만여 자원봉사자 중 분기별로 자원봉사 활동횟수, 봉사시간, 참여연수 등의 평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일반인 부문에는 △지역 아동들을 위한 제과·제빵 재능기부 봉사활동에서 힘써온 행복나누미봉사단 소속 이영우(36, 여) △일별김봉사단 소속 권혜정 씨(42, 여) △아동돌봄봉사단에서 놀이 활동과 교육활동을 보조해온 국정민 씨(27, 남) △민간환경감시단으로 활동한 유상민 씨(27, 남) △전주한지문화축제·전주비보이그랑프리 등 다양한 문화행사 활동 지원에 참여한 전태



현 씨(20, 남)가 선정됐다.

청소년 부문에서는 지역이동복지시설에서 방과 후 학습지도 및 놀이 활동을 보조해온 김다은 양(18, 여)과 대한적십자사전라북도혈액원에서 혈액 활성화 캠페인에 참여한 노은우 군(17, 남)이 시장 표장을 받았다. 황의욱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 곳곳에서 봉사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찾아가는 농지연금 컨설팅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충호)는 25일, 사매면 인화리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한 노후설계를 위한 찾아가는 농지연금 컨설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도입, 제도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60세 이상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농지소유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배우자 승계형의 종신형 상품은 경우 부부 모두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진행된 컨설팅에서는 농지연금제도 설명과 맞춤형 재무설계 컨설팅 및 개별된 맞춤형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요건과 사업별 혜택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고령은퇴·이농·전업·희망농가에 농지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연금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남원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063-620-2030~2)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a.or.kr)에 접속하면 사업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두표 김제소방서장, 현장행정 실시

전두표 김제소방서장은 25일 혈액투서 의료시설을 갖춘 김제시 가족사랑 요양병원을 찾아 환자의 회재대피 계획 적정성과 피난·방화·소방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행정은 지난 8월 5일 경기도 이천시 투석의원 건축물 화재로 5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의료기관 화재 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전두표 서장은 병원 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요양병원의 투석실을 둘러보며 최근 경기도 이천열린의원 화재사례를 공유했다.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나 치료시간이 오래 걸리는 투석환자는 화재 발생 시 빠른 대피가 어려워 많은 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유사 시 환자를 신속하게 대피시킬 현실적인 피난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전두표 서장은 "대형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방과 조기 대응"이라며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관내 각종 이용시설 및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68개소 병·의원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설치 독려 등 의료기관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9월 말 까지 추진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자봉센터, 주민들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는 지난 24일 2022 지역맞춤형 안녕캠페인 공모사업과 함께 행복~동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신풍동 동도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신풍동 도장경로당에서 진행되었으며 행복한 동네 만들기 사업을 함께 실시하고 있는 김제시 신풍동 동도마을의 가장 큰 문제점인 쓰레기 무단투기,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와 미래의 생태계 인식 및 예측을 바탕으로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소각용과 매립용과 같은 용도별 쓰레기 분리 배출 등의 교육을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주민들의 피해 호소 등의 문제인식, 해결가능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며 청결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현재 조성 중인 클린하우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실습은 주민들의 현장감을 더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도와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청결하고 행복한 동네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의 연구 활동 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교수와 동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우석심리운동학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정성기 기자



박숙경·푸웨이 박사, 우석심리운동학 장학기금 기탁

우석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박숙경(경희대 후미나타스칼리지 객원교수)·푸웨이(付偉) 박사가 후배들을 위해 장학기금 250만 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대학 본관 2층에서 열린 '우석심리운동학 장학기금 전달식'에는 오석홍 부총장과 박숙경 객원교수, 우용득 대학원장, 김윤태 주임교수 등이 참석했다.

박숙경 객원교수는 "한결같이 제자들을 아끼주고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교수님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또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에 매진해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금을 출연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오석홍 부총장은 "우석심리운동학 장학기금은 후배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해길 바라는 선배들의 희망과 격려의 신물인 만큼, 우리 후배 대학원생들이 이 학문 탐구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운동학과는 대학원생들



완산소방서, 취약계층 어르신 반찬 나눔 행사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족과의 교류가 어려워진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정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주완산소방서 직원과 여성의용소방대원(대장 송미숙) 10명은 이쁜 이침부터 여러 종류의 반찬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전주완산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원은 평소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순찰활동 뿐만 아니라 농촌일손돕기, 자연보호활동, 불우이웃 위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봉사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송미숙 대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교류가 힘들 지금, 반찬나눔 활동을 통해 사랑과 사랑을 전달하는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소외된 어르신들의 건강은 물론 따뜻한 사랑도 전달되어 마음에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임 전주주민자치위원장들, 성금 200만원 기부

전(前) 전주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박동열 회장)는 25일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시립'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기부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온 전임 주민자치위원장들 모임인이 단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잊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는 이웃을 돋پ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박동열 전(前) 전주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저희의 작은 나눔이 전주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전주시민을 위한 협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이영관 전(前)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시립' 이사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나눔을 실천해 모두의 귀감이 돼 준 전임 전주시 주민자치위원장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부해주신 성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시민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시립'은 △전주형 SOS긴급지원사업 △서민나눔긴급복지사업 △우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사업에 동참하기 원하는 시민들은 전화(063-281-0030)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